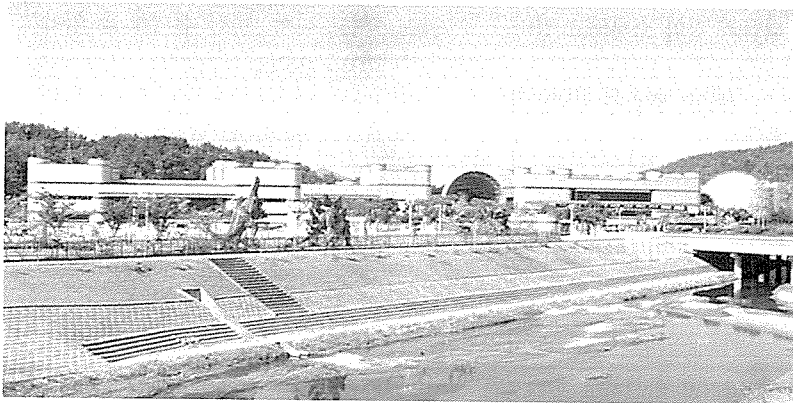


1945년 해방되던 해 서울 예장동에서 출범한 국립과학관은 1990년 10월 9일 대덕연구단지 5만평의 부지 위에 세운 연건평 8천여평의 새건물에서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재탄생했다. 청소년들에게 꿈을, 일반 국민들에게는 과학의 생활화를 심어주고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은 21세기를 향한 과학문화의 새로운 장으로 한국과학기술의 맥을 이어가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살아있는 과학문화의 전당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전경.

을 이어나가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각종 전시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에도 정진하고 있다.

살아 숨쉬는 과학의 전당

□ 상설전시장 = '자연과 인간과 과학의 조화'라는 상징주제에 따라 총 2천5백91평 규모의 상설전시관에는 「자연사」 「과학기술사」 「자연의 이해」 「자연의 이용」 등 4개분야에서 4천여점의 생동감있는 전시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자연사」분야는 '우주에서 인간까지' 코너에 우주의 시작과 진화, 생명의 탄생과 인류의 진화과정, 거대한 육식공룡의 골격을 비롯해 각종 화석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연' 전시코너에는 한반도의 생성과정에서부터 지질과 지역별 광물분포 및 동식물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담수생태계 전시관은 하천의 상류 및 하류의 특성을 재현하여 담수 생태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물속의 아름다운 전경을 관찰하므로써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과학기술사」분야는 '의·식·주' 전시코너에 농경의 변천, 한국인의 식생활, 한국인의 의생활, 한국의 가옥과 건축의 미

국립중앙과학관(관장 權甲澤)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일반인들에게는 친근감있는 과학기술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과학문화의 장으로 1945년 10월 국립과학관(서울 중구 예장동)으로 시작하여 1990년 10월9일 대덕연구단지 5만평의 부지위에 연건평 8천6백90평의 국립중앙과학관으로 개관하였다. 상설전시관, 탐구관, 특별전시관, 연구관리동, 천체관, 영화관, 세미나실, 실험실습실, 야외극장, 수장고 등의 각종 시설을 갖추고 이공학, 산업기술, 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조사, 연구와 전시로 과학기술지식의 보급 및 국민생활의 과학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외에도 한국과학기술의 맥



權 甲 澤
(국립중앙과학관 관장)

에 대한 내용이, '가공' 전시코너에는 금속가공과 지혜, 종이와 인쇄, 흙의 예술, 특산물, 국악기에 대한 내용이 전시되어 있다. '하늘과 땅의 과학' 전시코너에는 천문과 기상관측과 지리에 대한 내용이, '과학기술과 도구' 전시코너에는 도구, 군사기술, 한국의 의학, 한국의 옛 과학자와 과학기술 서적, 옛 과학기술의 교류 등에 대한 내용이 전시되어 있다. '자연의 이해' 코너는 지구과학·수학·물리·화학·생물 등 기초과학의 원리적 사항 전개에 중점을 둔 전시코너로 대형 지구본, 기상위성모형, 피비우스의 띠, 푸코진자, 레이저 홀로그래피, 분자구조모형, 인체의 구조 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자연의 이용' 코너에는 에너지의 이용, 기계, 정보, 교통과 수송분야로 짜임새있게 구성, 원자력발전의 원리, 태양에너지의 원리와 그 응용, 아름다운 미래도시가 디오라마형식으로 전시되어 있고 산업용 로봇과 왓트의 증기기관, 종합정보통신망 디오라마 등 인간의 자연이용에 대한 변천사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질의 응답' 코너는 전시장을 관람한 후 관람자가 알고 있는 과학상식에 대한 수준을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전시품 관람중 과학기술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대덕연구단지소재 연구소의 연구원 및 대학교수, 전직 과학교사 등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과학백문백답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탐구관 = 일반전시관과는 달리 관람자가 전시품을 직접 작동시켜 체험적인 실험과정을 거쳐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별도의 전시관인 탐구관에는 기초과학 전반에 관하여 탐구의



난이도에 따라 역학, 소리, 빛, 전기 등의 소분야별로 전시품을 배치하고 첨단 전시기

법인 텃치스크린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및 컴퓨터 분석을 통하여 자신의 음성 문양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천체관 = 광활하고 신비스러운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천체현상과 이에 도전하는 인간의 우주개발 모습을 현장감있게 보여주는 천체관은 건평 4백74평에 좌석 2백83석과 내경 23m의 45°경사식 반구형 돔 구조를 갖춘 국내 유일의 국제 수준급의 우주극장으로 사계절 별자리를 투영하는 플라네타리움 및 70m/m 필름의 영상매체를 통해 생동감있는 화면을 전개시키는 아스트로비전과 이들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보조 장비인 멀티이미지시스템을 완비하고 있다.

□ 옥외전시장 = 옥외전시장에는 육식공룡 티라노소르스, 초식공룡 스테고소르스 등 실물크기의 공룡과 침성대를 비롯하여 해시계, 풍기대, 측우기, 관천대, 물레방아, 수포 등 역사적인 과학사물을 실물대로 재현한 역사의 광장과 만남의 광장 및 야외극장 등이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휴식, 문화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과학기술 이해·보급 앞장

과학기술 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위하여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농림수산, 공업 등 6개



◀ 상설전시장으로 마련된 「자연사」(下)분야와 「과학기술사」분야 전시코너

분야로 나누어 매년 열고 있는 '전국 과학전람회'는 올해로 제41회를 맞이하여 각 시도에서 출품된 3천4백11점의 작품 중 예선을 통과한 작품은 2백93점으로 과학기술 이해·보급사업에 큰 몫을 하고 있다.

1979년 이래 금년까지 17차례 개최해 온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7천9백88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각 시도별로 지방예선을 거친 3백점의 작품이 생활과학, 학습용품, 과학완구, 자원재활용 등 4개분야로 나누어 본선에 올라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슬기롭게 이용하는 탐구정신 및 과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국민과학화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학교밖 과학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과학탐구활동을 통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공개과학교실, 여름과학캠프, 자연탐험대, 대덕연구단지 소개하기 위한 교육탐방코스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개과학교실은 학교에서 실험해 보지 못한 내용을 직접 실험해 의문점을 풀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탐구심을 길러주어 미래 과학자로서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연간 초등 5·6학년, 중등 1·2학년 학생 1천1백20여명(7회)을 방학기간 중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과학 공작, 과학스포츠, 컴퓨터 등 재미 있는 실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에 3박4일동안 과학관 야영장에서 과학탐구활동 등 현장 체험의 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는 '여름과학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연탐험대'는 철새관찰, 해양생물관찰, 곤충관찰 등 각 기수별 40명씩 초등 4·5·6학년 대상으로 야외 관찰 학습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이해와 생태계 보존 정신을 심어주고 있으며, 우리 전통 과학기술 문화의 뿌리를 찾기 위한 '전통과학대학'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매년 2기씩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재 탐방, 실연실습, 전문가 초청강의 등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다.

또한 '생활과학교실'에서는 봄·가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부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사진교실과 공예공작교실은 사진제작과정실습,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소품제작실습 및 공예, 염색 등 전문화된 공예기법을 실습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도모하고 있다.

저명 과학자들을 초빙하여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과학강연회'를 연간 10여회 실시하고 있으며, 2백여종 2천2백여점의 실험실습 기자재가 구비된 실험실습을 연중 개방하여 초·중학교 특별활동시간 등에 활



▲ 금년도 전국과학전람회의 입상작가 鄭根謨가기저장관 등 내빈들에게 작품설명하고 있다.

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거나 관찰이 어려운 것들을 과학적 시각에서 조명한 영화가 매일 2회씩 상영되고 있다.

과학의 생활화를 위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과학의 원리를 알기쉽게 설명한 '생활속의 과학' 등의 과학기술의 이해 증진을 위한 연구 자료를 1년에 3~4종 발간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민의 과학화와 관련하여 PC통신인 하이텔에 국립중앙과학관(GO NSM) 코너를 개설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과학관 관람시설 소개, 과학행사 안내, 역대 전국과학전람회 및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출품됐던 작품 내용을 검색하여 볼 수 있으며, 지방과학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등 폭넓은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하이텔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21세기 새 과학문화 열어

21세기 과학기술 선진국 구현을 위해 학교밖 과학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더불어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과학관 개관 이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도록 전시품을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작동전시품 위주의 생동하는 과학관을 구

현하기 위해 매년 10~20% 이상의 전시품을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연평균 1백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이용하는 사회교육의 장으로서 현시설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어 2단계 확충사업을 통해 현재의 상설전시관은 「기초 및 응용과학기술관」으로 전환하고 「자연사관」 및 「한국과학기술사관」을 신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부족한 과학관을 확충하기 위해 전국 10개 주요도시의 기존 유사 관련 기관(과학교육원 및 어린이회관)을 보완 발전시켜 지방과학관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금년도사업으로 3개기관(부산·광주·청주어린이회관)을 육성·지원하며 98년도까지 10개 기관에 전시품을 제작 지원하여 지방과학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

또한 전국민과학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을 7개권역(수도권·충청권 등)으로 나누어 특성화 과학관 설립·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계획으로는 권역별 중핵도시(부산·대구·광주·제주·춘천)에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특성화 과학관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96년부터 대구에 특성화 과학관 설립을 위해 예산을 계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 주요도시에 '지방과학관'을 설치해 국립중앙과학관 중심으로 '지방과학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각종 과학기술정보자료 교환 등을 통한 과학기술이해·보급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자라나는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부추기고 즐겨찾는 과학기술문화센터의 장이 마련될 것이다. 끝 67